

## 한국-베트남 호혜적 협력 심화를 위한 베트남어 전문 인재 양성

백영훈

단국대학교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조교수/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장



이 글은 한국과 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베트남 전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베트남 출신 이주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기반으로 한 사회문화적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언어 교육 역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에 머물고 있다. 특히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 체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한 취업 도구를 넘는 베트남어 교육과 이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발전하는 한국-베트남 관계, 서로 다른 상호 언어학  
습의 현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했고, 2023년에는 양국 외교부 장관이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에 서명했다. 해양·치안 역량 강화 및 방한 협력 확대 등 외교·안보 분야를 비롯하여 양국 간 무역·투자 증대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그리고 한국-베트남 교류 증진을 위한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 지원, 장학생 초청 사업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 발전에서 주목할 점은 인적 교

류의 급증이다.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 포함) 등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목적의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수는 2009년 대비 2019년에 약 10만 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유학생과 국민의 배우자 등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베트남 출신 체류외국인 인구 추이(2020~2024년)

	2020	2021	2022	2023	2024
베트남 출신 체류 외국인	211,243	208,740	235,007	271,712	305,936
유학생	57,945	63,491	71,038	80,343	96,957
국민의 배우자 (결혼 이민자)	44,058	41,447	39,136	41,772	41,779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법무부 출입국통계-체류외국인(2024년), 유학생, 결혼이민자 (2024년 12월 기준).

2025년 5월 9일에 베트남 현지에서 ‘KF 한국학 포럼 in 하노이, 베트남’이 개최됐다. 논의된 주요 내용은 베트남 내 한국학 교육이 한국어에 치중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수는 60개 이상이고, 100회차를 맞이한 토픽(TOPIK) 시험 응시자 수는 6만 2985명으로 2020년과 비교해 약 4만 5000명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에서 한국어(학)과 교수와 전문가들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과 인공지능(AI) 분야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서 한국 관련 교육은 언어 교육을 넘어 과학기술

## 전문가가 바라본 글로벌 핵심 이슈와 시사점

분야와 연계한 한국학으로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반면 한국 내 베트남어에 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베트남과의 경제적 관계는 심화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베트남어 교육 인프라와 인재 양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의 질과 접근성이 제한된 탓에 초급, 중급 수준을 능가하는 전문 분야의 인력과 교육 콘텐츠가 부족해거니와 어학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인문학 전공자에 대한 일자리 수요가 적어 한국에서는 타 분야와 연계한 베트남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 다문화, 외국인정책의 발전과 언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중요성

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쌍방향 문화 교류 확대, 중도입국자녀 지원,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성장단계별 지원 등을 강조해 왔다. 2010년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는 상

〈그림 1〉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



출처: 제1차~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및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 작성.

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와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을,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외국인정책 역시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 및 성장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이민자 자녀 학습 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제2차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이중언어 강사를 전국으로 확대 양성 및 운영을, 제3차 기본계획(2018~2022)에는 이중언어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고 유아·학령기 등 성장주기별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는 이중언어 역량강화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진로 컨설팅 및 대학생을 활용한 한국어·기

초학습 및 진로·진학 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두 정책의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구성원 등을 포함한 이주민을 단순한 수동적 대상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사회발전의 능동적인 주체로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지향한다. 그중에서도 언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강조한다. 언어 장벽은 이주민과 자국민 간의 관계 형성에 장애 요소가 되며, 언어 교육이 배제된 사회통합 정책은 소외 계층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제한된 베트남어 교육 기반과 학습 환경

다문화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에서 문화와 언어에 대해 강조하지만, 국내 베트남어 교육 기관은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기관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한국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 수준으로 교육하는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단국대학교(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산대



〈표 2〉 국내 대학의 베트남어 관련 학과 현황

대학	개설 전공	강좌 수	소재지
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	18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21	
단국대	아시아중동학부 베트남학전공	22	충남
부산외국어대학교	베트남어	21	부산
영산대	한·베트남통역전공	20	

출처: 교육통계서비스, “2024 학교/학과별 데이터셋” (검색일: 2025.05.27.)

〈표 3〉 국내 대학의 전공 이외 베트남어 교육 개설 현황

대학	개설 전공	강좌 수	소재지
서울대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언어문명전공	2	서울
	교양과정	1	
서울시립대	교양과정	1	충남·대전
단국대	교양과정	2	
한남대	베트남지역학연계전공	5	경북
영남대	교양과정	2	
부경대	국제지역학부	4	부산

출처: 주요 대학 사이트 및 수강편람 참조(검색일: 검색일: 2025.05.30.)

학교(부산) 등 소수에 불과하다. 교양이나 연계전공으로 개설한 대학도 서울대, 서울시립대(서울), 단국대, 한남대(충남, 대전), 영남대(경북), 부경대(부산) 등으로 제한적이며, 대부분 중급 이하 수준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EBS,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전문교육기관과 일부 대학들이 국가재정사업 혹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초, 중, 고교 및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표 4〉 참조).

대표적인 프로그램들 중 하나는 대국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립국제교

육원의 ‘특수외국어 배워보기’다. 2016년 제정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가 발전 및 전략적으로 필요한 언어들을 대상으로 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지역의 언어가 지정되었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8.2.)을 통해 1단계(2017~2021년)에 이어 2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2단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사업(2022~2026년)이 진행되고 있다.

지정된 특수외국어 가운데 베트남어의 경우 단국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과 부산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사업단, 두 전문교육기관이 전문 인재 양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교육기반 고도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표 4〉 학생, 일반인 대상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

제공기관	프로그램	운영 시기	온/오프라인
EBS	초급 베트남어1, 2	상시	온라인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상/하반기	온라인
단국대 특수외국어사업단	국내연수(말하기듣기 클리닉, 읽기쓰기 클리닉)	학기중/하계, 동계	온라인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	동남아언어캠프	하계	오프라인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하계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	상/하반기	온라인
아세안문화원· 부산외대 특수외국어사업단	아세안언어강좌	봄/가을	온라인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언어캠프	동계	오프라인

주: 2024년, 2025년 상반기 운영 프로그램 기준

출처: 각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필자 작성

는 국내연수와 동남아언어캠프, 특수외국어 이중언어 캠프 등이 있으며 학기 중 혹은 하계, 동계 방학에 각각 온라인과 오프라인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강대 동아연구소,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아세안문화원 등 다양한 대학 연구소와 기관들이 베트남어를 포함한 언어학습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한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열린동남아학교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한 강좌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매주 1회당 100분씩, 총 12주의 일정으로 구성된다. 아세안문화원은 부산외대특수외국어사업단과 공동으로 아세안언어강좌를, 전북대 동남아연구소는 부산외대와 공동으로 동남아언어캠프를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사실 교육기관에서 베트남어 수업이 대폭 증가했고, 유튜브(YouTube)와 블로그 등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서도 시공간적인 제한 없이 학습할 수

있다. 단, 주로 입문과 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콘텐츠가 대다수이며 중급 이상 혹은 특정 전문 분야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는 제한적이다. 최근 시사베트남어, 영화 혹은 음식으로 배우는 베트남어 등 특정 주제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 베트남어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진학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의 목적과 내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중급 이상의 과정이 개설되기 어려운 구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초등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 및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교육이 주로 제공되며, 이들 프로그램은 학교 방과후 수업 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단기 행사성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목으로 입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베트남어 자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입시 문제 풀이 위주의 내용을 학습하고 있다.

〈표 5〉 시기별 베트남어 교육 목적 및 내용

대상	주요 교육 목적 및 내용
초등학생	다문화 이해,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자녀 대상 언어 교육 (엄마나라 언어 배우기 등)
중학생	
고등학생	입시(제2외국어, 베트남어)
대학생	진로, 취업, OPI/OPIc, FLEX 등 베트남어 언어능력 시험 대비
산업체 종사자, 공무원 등 일반인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

출처: 필자 작성.

대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 비해 체계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전공 교과목을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4학년 과정에서는 학과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한 초급, 중급, 고급 베트남어, 비즈니스 베트남어, 시사 베트남어, 베트남어문학 등 다양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전공생들은 졸업 및 취업을 위한 지원 자격에서 요구하는 외국어말하기평가(OPI/OPIc) 혹은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점수 취득을 목표로 학습한다. 산업체 종사자와 공무원 등 일반인들은 관련 업무와 필요에 따라 무역, 관광, 보건,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회화와 표현 중심의 학습에 관한 수요가 많다.

#### 베트남어 교육 심화를 통한 한국-베트남 간 호혜적 협력 기대

한국-베트남 관계에서 언어 교육은 주로 베트남인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수용하는 일방향적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관이 많으며,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이나 학위 증명 등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이 검증된다. 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 및 베트남 문화에 대한 교육은 사회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수도 적거니와 대부분 초, 중급 수준의 베트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적 필요에 따른 실용 회화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어 교육의 심화는 단순한 언어능력 향상을 넘어, 다문화사회 통합, 산업 협력 강화, 그리고 상호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베트남 출신 장기체류 인구의 규모와 유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계획을 바탕으로 관련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은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베트남어는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수한” 핵심 언어에 해당한다.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서 베트남인 종사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산업 통역, 노무관리, 안전교육 등 베트남어 활용이 요구된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베트남어 사용자에 대한 접근성과 다문화 소통 역량을 강화할 인재 양성도 절실하다. 그런데 통번역 업무에서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보다, 한국어에 능통한 베트남 출신 이주민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중언어 강사의 다수는 결혼이민자

로, 이중언어 교육 또한 한국인의 다문화 이해 확대 보다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사회 적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진정한 사회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배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베트남어 교육은 시기별, 목적별로 단절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취업 도구로서의 학습을 넘어 전문 분야 언어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 베트남 내 한국어 교육이 STEM 및 AI 분야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내 베트남어 교육도 단순히 언어 중심을 탈피해 베트남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화 학습을 포함하는 다층적 교육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한국-베트남 간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초·중급에서 고급 및 전문 과정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양성을 위한 학업 및 연구 여건 조성, 인문학 및 어학 전공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 〈참고 문헌〉

- 김준석. 2025/05/09. “서른 살’ 베트남 한국학 연구에 쏟아진 제언...”어문학을 깨고 과학기술과 융합해야.”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091324076756>.
- 김준석. 2025/05/11. ““한국어 하면 월급 3배”... 하노이 20대 학생들 ‘열공’ [베트남에 부는 한국어 바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50511175745515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2011년도 시행계획(안).”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863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3115>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20~2023년.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70/subview.d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0.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 <https://www.immigration.go.kr/bbs/>

immigration/226/327254/artclView.d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8.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oj.go.kr/bbs/moj/164/423199/artclView.do>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24.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immigration.go.kr/bbs/immigration/226/578947/artclView.do>
- 변수정·정희선·김기태·이창원·김희주. 2021. 「사회통합의 또 다른 시각: 이주민이 인식한 한국 사회의 수용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보고서 2021-37).
- 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https://www.mogef.go.kr/mp/pcd/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810)
- 여성가족부.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https://www.mogef.go.kr/mp/pcd/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https://www.mogef.go.kr/mp/pcd/p_pcd_s001d.do?mid=plc503&bbtSn=704956)
- 외교부. 2023/06/23. 보도자료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주요 내용.” [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https://overseas.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3830).
- 이민정책학회. 2012.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https://www.mrtc.re.kr/communi>

ty/05.php?admin\_mode=read&no=9449&make=&search=&type=&apply\_no=&table\_name=trend03\_1

- 정희원. 2013. “한국의 다문화 사회화와 언어 교육 정책.” 새국어생활 제23권 제4호(2013년 겨울).
- 최경운. 2023. “한국, 베트남에 40억달러 유상원조... 희토류 협력 강화한다.” 조선일보 6월 2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3/06/23/3MHE5U3K2NFXNPK46PIFMMWGV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AI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4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